

## 재미 동포의 언어 정체성과 한국어 능력에 대한 세대별 비교 분석 연구\*

원 미 진

### Abstract

**Won, Mijin.** 2015. 9. 30. **The generational comparison analysis on the language identity and Korean proficiency of Korean Americans.** *Bilingual Research* 60, 179-2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language use patterns of Korean-Americans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1st, 1.5th and 2nd generation in the USA. The data revealed tha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the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perception on the language identity. Korean Americans perceive the necessity of English proficiency is slightly stronger than the necessity of Korean proficiency. This result reflects that Korean Americans generally put more importance on the language of their residential country and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on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he CIS. However, the percentage of Koreans who perceive Korean language as their mother tongue is higher in the US, comparing to China and the CIS. Therefore, Korean Americans show more positive perception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an English and American culture. Based on the analysis by the immigrant generation variable, the first-generation immigrants show high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in all areas, whereas the second-generation immigrants show the opposite results. For the 1.5th generation immigra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ir Korean and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he variable of the immigrant genera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o the language use of Korean Americans due to the uniqueness of Korean American society where different generations are still residing closely

---

\* 이 논문은 2015년 언어 접촉과 문화 간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한국사회언어학회와 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and where there is still active inflow of first-generation immigrants from Korea to the US. This phenomenon is unlike other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he CIS and will be a positive evidence of maintaining Korean in the USA. (Yonsei University)

**【Key words】** Korean Americans(재미 동포), language identity(언어 정체성), language proficiency(언어 능력), immigrant generation(이주 세대), mother tongue(모국어)

## 1. 서론

‘모국어<sup>1)</sup>가 어떤 언어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나의 모국어는 어떤 언어일까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모국어를 대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7백만 재외 동포들 가운데에는 모국어를 한국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미 모국어가 한국어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재중 동포들의 경우에는 2012년 이루어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sup>2)</sup>에서 모국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80% 정도가 조선말이라고 답하였다. 중국에 사는 동포들의 경우는 중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음에도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 세대의 연령층에 걸쳐 중국의 한족말보다 조선말을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 이루어진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고려말보다 러시아어가 모어라고 인식하고 있는 동포들이 압

- 1) 모국어라는 용어 대신에 모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며, 이 용어가 mother tongue의 개념이나 first language의 개념과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모국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 모국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 국립국어원에서 재외 동포들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장기 사업으로 2012년에는 재중 동포 대상 언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독립국가연합 동포를, 2014년에는 재미 동포 대상의 언어 실태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적이었다(러시아어 74%, 고려말 14%). 이들은 언어 능력에 있어서도 한국어(고려말)에 비해 러시아어 능력이 월등했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국어 능력이 낮아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재미 동포들의 경우에는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sup>3)</sup>에서 모국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어라고 답한 비율이 87%에 이른다. 그러나 이 비율은 40대 이상에서는 90%가 넘는데 비해 20대는 약 70% 10대는 약 55% 만이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세대 간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만 명 이상의 재외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지역 동포들의 이주는 이주 시기나 목적, 그리고 이주 역사에 있어서 재중 동포와 독립국가연합 지역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거리상으로 한국과 멀리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와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미 동포 사회에서 한국인과 한국어에 대한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것을 한국어의 사용 양상 및 각 세대별 한국어 능력과 함께 분석해 보는 것은 재외 동포 사회에서 한국어의 앞날을 예측해 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재미 동포의 이주 시기를 고려하여, 성인이 된 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1세대와 초등학교 때나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1.5세대,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학령기 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2세대의 세대별 변인에 따른 언어 정체성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어 사용 능력과 사용 실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이 사업은 국립국어원에서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다섯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재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사업이다. 이 논문은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사업의 연구 책임자였던 필자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모은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여 논문을 통계적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 2. 이중 언어 환경에서의 언어 정체성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언어 정체성은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 발전되면서 자신의 본질을 규명해 가는 것처럼 한 언어의 정체성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안에서 형성 발전되면서 한 개인과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형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 정체성’은 언어 또는 언어 행위에 귀속된 일련의 아이디어, 가치관, 정서 및 신념 체계를 의미하며 (Baker, 1992)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속한 그룹의 정체성을 포함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다.(Ochs, 1993 /김태진 (2014)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이러한 언어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언어 간의 접촉 환경에서 언어의 유지 및 소멸, 언어 공동체의 변화 및 새로운 언어 사용 공동체의 형성을 겪고 있는 이주 동포 사회의 언어 변화의 중요한 변인에 대한 논의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재미 동포들의 언어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어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언어 정체성이 언어 태도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언어 태도에 대한 논의로 많이 나타났다. 언어 태도라는 개념 이외에 언어 이데올로기(Language ideology)<sup>4)</sup>라는 개념도 사용되었고, 언어 의식<sup>5)</sup>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학문적으로 공유하는 영역

4)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해 Silverstein(1979:173)에서는 ‘주어진 언어의 구조와 사용에 대해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언어에 대한 화자의 분명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고 Rumsey(199:346)에서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 화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적 가치관’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로 볼 때 언어 이데올로기는 언어 태도와 개념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5) 언어 행동의 범주에 언어 태도의 결과들이 관여한다고 보고 언어 태도라는 용어 대신에 언어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민현식

에 따라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언어 공동체에서 개인이 언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개인 및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언어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정체성은 언어 선택의 상황에서 정체성 형성의 방향에 따라 일정 태도를 보이며 나타나는데 특별히 재외 동포들의 경우에는 모국어의 유지 및 사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언어에 대한 태도가 언어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연구에서 Oakes(2001)는 언어 태도를 주로 감정, 인지, 행위라는 세 가지로 구분한 일반적인 태도 연구의 구성 요소를 받아들였다. Oakes는 언어 태도를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의 정의적 측면과 언어에 대한 신념인 인지적 측면, 그리고 언어활동의 행위적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의 언어 태도를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도구적 차원(instrumental)과 통합적 차원(integrative)으로 제시하였다. 도구적 차원의 태도가 언어 지식을 사용해서 사회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려는 실용적 동기를 반영한다면, 통합적 차원의 태도는 어떤 언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대인 관계를 위한 동기를 포함하는 차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어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어떻게 구분하여 측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

(2002)이 있다. 민현식(2002:79)은 언어 태도와 언어 의식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태도의 바탕에 있는 언어 의식이란 면을 부각시키고자 언어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진숙(2013:117) 역시 언어 태도와 유사한 개념 중 하나로 언어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해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태도나 가치관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박경래(2002), 박주형(2010)은 언어 의식은 언어에 대하여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내적 사고 작용을 가리킨다는 점, 즉 심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언어 태도는 이러한 심리가 행동으로 드러나 구체적인 반응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재미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4) 재인용>

김태진(2014)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구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 정체성, 문화 정체성, 언어 정체성의 항목을 측정하였고, 언어 정체성을 주관적 인식 및 도구적 인식, 그리고 언어 감정, 언어 인지, 언어 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를 다시 요인 분석을 통해 내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체성의 구성 요인을 문화적 선호도와 자긍심, 민족 정서와 언어 감정 및 행동, 언어 인지, 커뮤니티와 또래 집단, 그리고 문화 행동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재미 동포의 언어 정체성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모국어(한국어)에 대한 태도, 한국어 사용에 대한 태도, 한국 문화 및 국가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태도 및 한국어 사용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언어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며, 한국 문화 및 국가에 대한 태도는 국가 정체성 및 문화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한국어 사용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재미 동포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고는 이중언어 사회 안에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보존하려는 태도와 목표어인 거주국 언어로의 전환 태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요인이 언어 선택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언어 정체성 및 사용에 관여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재미 동포 사회에서 한국어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결과

#### 3.1 세대별 언어 태도 비교 분석

본고의 연구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1048명의 재미 동포들이다. 이들의 언어 정체성이 한국어의 사용과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수합하였고, 이들을 이

주 당시의 나이와 태어난 곳의 여부에 따라 1세대, 1.5세대, 2세대로 나누었다. 1세대 533명(50.9%), 1.5세대 213명( 20.3%), 2세대 290명 (27.7%)로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세대라 함은 20세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며, 1.5세대는 초,중,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 그리고 학령 전에 미국으로 이주했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2세대로 분류하였다. 각 세대별로 구체적인 이주년도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 1> 설문대상자의 이주 나이

이주 시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미국태생	198	18.9
	7세전이주	92	8.8
	13세전이주	104	9.9
	16세전이주	55	5.2
	19세전이주	54	5.2
	20-29세이주	300	28.6
	30-39세이주	157	15
	40세이상이주	76	7.3
	합계	1036	98.9
결측	결측값	12	1.1
합계		1048	100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세대별로 분석한 뒤에 세대별 차이를 파악하여 언어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재미 동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외 동포 언어 연구라는 큰 틀에서 다른 지역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특성을 밝혀 보려 한다. 이민 사회에서 언어 정체성은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거나 또 다른 언어 정체성에 동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둘 사이의 선택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민 사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일본 오

사카 지역에서 이루어진 언어 태도에 대한 조사(강정희, 2004)에 따르면 제일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어의 보존은 초기 이주자인 1세대 집단에 한정되어 있고, 2세대부터는 일본어로 전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가장 가깝고 접촉도 가장 활발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정체성과 언어 전환이 기대와 달리 일본으로의 통합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강정희(2004)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배타적 태도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다언어 정책을 펼었던 중국 동포들의 경우는 제일 동포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조선말을 모국어라고 인식한 비율이 80%에 이르고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모두 80% 내외로 조선말을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재중 동포들이 조선말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평균 4.65/5점 만점)과 한족말 능력의 필요성(평균 4.70)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박경래 외 <재중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2).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이주가 시작된 독립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구소련의 역사적 사건과 독립 후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이 지역 동포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러시아어가 모국어라고 인식한 비율이 74%정도이고 고려말을 모국어로 인식한 비율은 14%,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한 비율은 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태도는 세대별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70대 이상인 경우에는 러시아어 45% 고려말 38% 정도로 반반이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50~70대 이상은 75%, 10~40대까지는 80%가 넘는 동포들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 지역 동포들은 전체적으로 고려말 능력의 필

6) 이후 제시하는 모든 평균값은 5점 만점임. 5점 만점 생략하고 평균 값만 제시하기로 함.



요성(4.43)보다 러시아어 능력의 필요성(4.67)을 더 느끼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한영균 외 <독립국가연합 언어 실태 조사>, 2013)

상대적으로 이민 역사가 짧은 재미 동포들의 경우에는 모국어인 어떤 언어인가를 묻는 항목에 전체적으로 87%가 한국어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어가 모국어라는 인식이 가장 큰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3세대 동포들이 거의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서론에 기술하였듯이 세대별로 모국어 인식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세대가 지나면서 다른 지역과 같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재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의 평균값이 4.24인데 비해 영어 능력의 필요성은 4.41로 두 집단의 양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해 보니( $t_{값}=-6.284$ ,  $p=.000$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즉 한국어 능력보다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언어 공동체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재외 동포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주국의 언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재미 동포들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1세대와 1.5세대 및 2세대는 한국어 사용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집단별 차이가 있지만 1.5세대나 2세대 간의 차이는 없다. 상대적으로 이들이 영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세대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2세대는 그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1세대와는 차이가 없다.

&lt;표 2&gt; 한국어와 영어의 능력의 필요성 이주 세대별 분석

		N	평균	표준편차	F/유의 확률	사후검정
한국어능력 필요성	2세대 (a)	290	3.95	.794	40.179/.000**	c>a,b
	1.5세대(b)	211	4.09	.871		
	1세대(c)	529	4.45	.806		
	합계	1030	4.24	.847		
영어능력 필요성	2세대(a)	289	4.51	.698	4.331/.013*	a>b
	1.5세대(b)	213	4.31	.756		
	1세대(c)	532	4.41	.782		
	합계	1034	4.42	.757		

이런 현상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재외 동포 집단에서 전체적으로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국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언어 능력의 필요성을 세대별로 분석해 본 것을 다시 한 번 세대별로 두 언어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해 보니 1세대는 영어(4.41)나 한국어(4.45)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t_{값}=1.106, p=.269$ ), 1.5세대와 2세대의 경우는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해야 한다는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1.5 세대:  $t_{값}=-3.509, p=.001$ / 2세대 :  $t_{값}=-11.040, p=.000$ )

이러한 세대별 차이가 재미 동포들이 세대별로 모국어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재미 동포들을 모국어 인식 여부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3>에 제시된 교차분석 표에서 보는 것처럼 1세대와 1.5세대의 대부분은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세대에 있어서만 그 경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2세대로 넘어가면서 모국어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모국어 인식 여부를 바탕으로 재미 동포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에 그 두 집단 간에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다른가를 분석한 것이다.

<표 3> 모국어 인식 이주 세대별 교차 분석

	모국어				전체
	한국어	영어	기타언어	둘다	
2세대	178	107	1	4	290
	61.4%	36.9%	0.3%	1.4%	100.0%
1.5세대	210	2	1	0	213
	98.6%	0.9%	0.5%	0.0%	100.0%
1세대	516	10	3	1	530
	97.4%	1.9%	0.6%	0.2%	100.0%
전체	904	119	5	5	1033
	87.5%	11.5%	0.5%	0.5%	100.0%

<표 4> 한국어와 영어 능력의 필요성 모국어 집단별 분석

	모국어	N	평균	표준편차	t	p
한국어 능력 필요성	한국어	907	4.26	.853	3.043	.003
	영어	122	4.03	.781		
영어 능력 필요성	한국어	912	4.39	.764	-2.091	.038
	영어	121	4.54	.696		

모국어를 한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과 모국어를 영어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 사이에는 각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영어 능력의 필요성은 영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이들이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모국어를 한국어로 인식하도록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앞의 <표 3>에서 본 것과 같이 2세대들이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영어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아직까지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표 5>의 자료를 보면 2세들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5세대 역시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평소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평소많이쓰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2세대	12	273	4	289
	4.2%	94.5%	1.4%	100.0%
1.5세대	88	107	18	213
	41.3%	50.2%	8.5%	100.0%
1세대	416	80	29	525
	79.2%	15.2%	5.5%	100.0%
전체	516	460	51	1027
	50.2%	44.8%	5.0%	100.0%

<표 6> 가족 대화 시 많이 쓰는 언어 이주 세대별 분석

	가족대화시많이쓰는언어			전체
	한국어	영어	둘다	
2세대	183	95	12	290
	63.1%	32.8%	4.1%	100.0%
1.5세대	170	28	15	213
	79.8%	13.1%	7.0%	100.0%
1세대	436	69	20	525
	83.0%	13.1%	3.8%	100.0%
전체	789	192	47	1028
	76.8%	18.7%	4.6%	100.0%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2세대들이 평소 많이 쓰는 언어는 95% 가량이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미 동포 2세의 언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 더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6>은 가족끼리 대화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응답인데 가족 대화 시에는 영어의 사용보다 한국어의 사용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표 6>의 결과는 위의 <표 3>에서 제시했던 재미 동포들이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재미 동포들은 가족과 사용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 비율에 있어 2세대의 경우에도 <표 5>에서 평소 많이 쓰는 언어와 상관없이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2. 세대별 정체성 성향 비교 분석

본고에서는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 유지 및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Lee(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문 문항을 재조정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1에서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어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문화적 정체성 및 국가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sup>7)</sup> <표 7>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재미 동포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는 한국적 성향이 미국적 성향보다 높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가와 다른 사람이 한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쁜지를 묻는 항목, 한국어를 선호 여부, 그리고 한국인과 잘 어울리는가를 묻는 문항은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항목이며, 그 이외에 한국 음악, 한국 영화나 드라마, 한국 음식 및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 정체성을 묻는 항목이다.

&lt;표 7&gt; 재미 동포의 미국적 성향 및 미국적 성향 비교

한국적 성향	N	평균	표준 편차	미국적 성향	N	평균	표준 편차	t	p
한국 음악을 즐겨 들음.	1029	3.53	1.132	미국 음악을 즐겨 들음.	1031	3.36	1.043	3.484	.001**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봄.	1034	3.80	1.085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봄.	1034	3.50	1.060	6.408	.000**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음.	1036	4.29	.792	미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함.	1028	3.32	.871	30.136	.000**
다른 사람이 한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쁨.	1033	4.50	.730	다른 사람이 미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쁨.	1032	3.28	.967	35.063	.000**
한국 전통 문화를 지킴.	1031	3.75	.920	미국 전통 문화 대부분을 지킴.	1017	3.19	.907	14.440	.000**
한국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음.	1036	3.76	1.023	미국 이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1036	3.08	1.072	13.289	.000**
한국 음식이 좋음.	1038	4.52	.691	미국 음식이 좋음.	1031	3.54	.951	28.427	.000**
다른 한국인들과 잘 어울림.	1033	4.29	.821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과 잘 어울림.	1034	3.45	1.114	19.319	.000**

위와 같은 결과가 세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표 8>과 <표 9>를 보면 세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1.5세대들은 앞의 <표 7>에서 나타났던 전체적인 재미 동포들의 경향과는 달리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 선호도에 있어서는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의 선호도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표 9>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2세대들의 경우에 점점 1세대들과는 차이가 드러난다. 우선 음악이나 드라마 선호도에서 한국적인 것보다 미국적인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한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민족적 정체성 부분은 여전히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지만 전통 문화에 대한 생각이나 이름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2세대의 경우에는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현대 문화적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미국적 성향이 강해졌으며, 한국의 전통을 지키거나 한국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서도 1세대나 1.5세대와 달라져서 한국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2세대들은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재미 동포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가운데서 민족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있지만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세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표 8> 재미 동포 1.5세대의 한국적 성향 및 미국적 성향 비교

		평균	N	표준편차	t	P
대응 1	한국음악즐거들음	3.50	210	1.158	-.875	.383
	미국음악즐김	3.58	210	.941		
대응 2	한국영화와드라마즐김	3.85	213	1.111	.508	.612
	미국영화와드라마즐김	3.80	213	.942		
대응 3	한국인인것이자랑스러움	4.34	211	.779	14.671	.000**
	미국문화자랑스러움	3.35	211	.799		
대응 4	한국인무시하면기분나쁨	4.52	213	.775	16.576	.000**
	미국인무시하면기분나쁨	3.23	213	1.035		
대응 5	한국전통문화지킴	3.77	209	.919	8.858	.000**
	미국전통문화지킴	3.13	209	.897		
대응 6	한국이름좋아함	3.76	213	1.045	7.076	.000**
	한국인미국이름있어야함	2.90	213	1.151		
대응 7	한국음식좋아함	4.56	212	.669	12.151	.000**
	미국음식좋아함	3.80	212	.850		
대응 8	한국인과잘어울림	4.33	211	.852	7.631	.000**
	미국인과잘어울림	3.69	211	.973		

<표 9> 재미 동포 2세대의 한국적 성향 및 미국적 성향 비교

		평균	N	표준편차	t	P
대응 1	한국음악즐거들음	3.29	287	1.207	-7.287	.000**
	미국음악즐김	3.92	287	.941		
대응 2	한국영화와드라마즐김	3.60	286	1.096	-9.187	.000**
	미국영화와드라마즐김	4.28	286	.790		
대응 3	한국인인것이자랑스러움	4.33	287	.752	9.306	.000**
	미국문화자랑스러움	3.78	287	.810		
대응 4	한국인무시하면기분나쁨	4.33	287	.788	13.368	.000**
	미국인무시하면기분나쁨	3.48	287	.946		
대응 5	한국전통문화지킴	3.62	284	.946	.268	.789
	미국전통문화지킴	3.60	284	.829		
대응 6	한국이름좋아함	3.28	285	1.019	.746	.456
	한국인미국이름있어야함	3.21	285	.999		
대응 7	한국음식좋아함	4.64	286	.632	9.041	.000**
	미국음식좋아함	4.13	286	.802		
대응 8	한국인과잘어울림	4.21	287	.877	-2.070	.039*
	미국인과잘어울림	4.35	287	.746		

### 3.3. 세대별 언어 능력 비교 분석

재미 동포들의 언어 능력 비교를 위해 1점부터 5점의 척도로 평가한 항목의 평균값은 <표 10>과 같다.

<표 10> 재미 동포들의 언어 능력 비교 분석

	한국어			영어			t값	유의확률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말하기	1031	3.99	1.082	999	3.8	1.036	3.601	.000**
듣기	1005	4.28	0.909	996	3.9	0.982	8.049	.000**
읽기	1004	4.11	1.156	1003	3.96	0.971	2.517	0.12*
쓰기	1004	3.87	1.27	996	3.78	1.006	1.367	.172



이 평균값은 각 언어 영역마다 5가지<sup>8)</sup>를 평가하게 한 항목의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재미 동포들은 아직까지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쓰기 능력에 있어서만 두 언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별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11> 1세대의 언어 능력 비교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p
말하기	한국어	4.51	496	.747	30.392	.000**
	영어	3.10	496	.784		
듣기	한국어	4.67	495	.596	37.162	.000**
	영어	3.24	495	.783		
읽기	한국어	4.74	495	.577	34.238	.000**
	영어	3.37	495	.845		
쓰기	한국어	4.62	490	.645	37.942	.000**
	영어	3.12	490	.749		

<표 12> 1.5세대의 언어 능력 비교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p
말하기	한국어	4.17	208	.790	1.450	.149
	영어	4.06	208	.778		
듣기	한국어	4.38	203	.751	1.835	.068
	영어	4.25	203	.739		
읽기	한국어	4.28	205	.873	1.233	.219
	영어	4.18	205	.755		
쓰기	한국어	3.95	201	1.090	-.551	.582
	영어	4.00	201	.815		

8) 각 언어 영역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있어 기초적인 언어지식, 친숙한 상황에서의 언어 지식, 사회적 상황에서의 언어 지식, 전문적인 상황에서 영역별 언어 지식에 대한 능력을 응답하게 한 뒤에 그 항목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lt;표 13&gt; 2세대의 언어 능력 비교 분석

		평균	N	표준편차	t	p
말하기	한국어	2.98	272	1.057	-25.528	.000**
	영어	4.83	272	.509		
듣기	한국어	3.51	256	.990	-20.262	.000**
	영어	4.85	256	.401		
읽기	한국어	2.85	267	1.133	-26.518	.000**
	영어	4.85	267	.422		
쓰기	한국어	2.48	267	1.063	-30.300	.000**
	영어	4.78	267	.525		

위의 <표 11>~<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별로 나누어서 살펴 보면 재미 동포 1세대들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5세대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영역에서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는 두 언어 능력 사이에 우월을 가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2세대의 경우는 당연히 영어 능력이 우수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4. 결론 및 남은 문제

재미 동포 1세대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임에 반해 1.5세대들의 경우는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지만 이들의 언어 능력은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 능력이 비슷한 이중언어 화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 집단에서 일어나는 언어 전환의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R. Gracia와 Díaz (1992/Colin baker, 2011에서 재인용)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이민자 집단은 1세대의 이민자들이 영어를 배우는 동안 모국어를 계속 지켜가면서 사는 데 비해 그 다음 세대는

영어를 쓰는 공동체로 동화되는 것에 열중하면서 1세대 사람들과는 모국어를 쓰며,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영어를 쓰면서 영어로의 전환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모국어를 위해 남겨둔 맥락에서까지 영어가 쓰이게 되면 모국어가 불안정해지고 영어로의 전환이 끝난 것으로 보았다. Batibo(2005)는 케추아(Quechua)어와 스페인어 간의 전환의 단계를 보이면서 5단계 언어 전환의 단계를 밝혔는데 이를 적용해 보면 첫째, 모국어로의 단일 언어, 둘째, 이중언어에서 거주국 언어보다 모국어가 더 우세함 셋째, 두 언어가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중언어, 넷째, 이중언어지만 거주국 언어가 더 지배적, 다섯째 거주국 언어로의 단일 언어 화자라는 단계를 밟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 전환의 단계를 고려하여 재미 동포들의 언어의 문제를 대입해 보면 1.5세들의 양상은 언어 전환 단계의 셋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이는데, 즉 이들의 특성은 두 언어의 사용이 가능한 이중언어 화자라는 점이다. 그리고 재미 동포 2세들의 경우는 셋째 단계를 넘어서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간 언어 사용자들이 많아졌다고 하겠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족들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국어의 사용 영역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완전하게 거주국의 언어로 전환하느냐의 문제는 모국어의 사용 맥락이 어떻게 남아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국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에 대한 태도 및 언어 정체성에 있어서 재미 동포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모국어를 한국어로 인식하고 있고 민족적, 문화적으로도 한국적 성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남아 있는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재미 동포 2세대들의 언어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 향후에 더 많이 쓰일 언어를 묻는 질문 항목을 보면 2세대 역시 1세대나 1.5세대들과 차이 나지 않게 30% 이상이 한국어가 쓰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측 결과는 이들이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재미 동포들의 언어 사용 양상은 이주 역사를 고려해보면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 동포들보다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1세대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변화 양상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1세대들의 언어 정체성이나 언어 능력과 비교한다면 2세대의 양상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이주민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언어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밑바탕에 존재하는 언어에 대한 태도를 근거로 한국어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다른 이주민 사회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부정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항목들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면 세대별 차이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2세대들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는 비율과 한국어의 미래에 전망에 대해 그리 어둡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추후 언어 유지 및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본격적인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한국어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강정희(2002).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조사: 오사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86호, 한국어문학회. 1쪽-29쪽.
- 김성규 외(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김태진(2014).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과 계승어 교육, <이중언어학> 54호, 이중언어학회. 99쪽-122쪽.
- 민현식(200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10-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73쪽-112쪽.
- 박경래(2002).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59쪽-85쪽.
- 박경래 외(2012). <재중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박주형(2010). 한국 내 중국 조선족의 언어 태도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미진 외(2014). <재미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원진숙(2013). 다문화 배경 국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의식, <國語教育學研究> 46, 국어교육학회. 111쪽-138쪽.
- 윤인진(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12-1호, 재외한인학회. 5쪽-64쪽.
- 임영철 외(2011). <국외 동포 언어 실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한영균 외(2013).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Baker, C. (1992). *Attitude and Languag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aker, C. (2001). *Foundations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atibo, H. M. (2005). *Language decline and death in Africa: Causes, Consequence, and Challeng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ho, Grace, Cho, Kyung sook & Tse, Lucy(1997), *Why ethnic minorities want to develop their heritage language: The case of Korean-Americans*, New York : Routledge.
- Cho, Hyesun(2014), *'It's very complicated' exploring heritage language identity with heritage language teachers in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New York : Routledge.
- Chun, Hee Chung(2011), 재미교포 청소년의 문화정체감과 한국어 숙달도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arcia, Dania Lopez(2008), *!En esta casa se habla espanol! The role of language ideology and life choices in language maintenance and language shift across three generations of a Cuban American family in the United States*,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Lee, Jin Sook(2010),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The Role of Cultural Identity in Heritage Language Learning*, New York : Routledge.
- Oakes, L. (2002) *Language and National Identity: comparing France and Swede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원미진(Won, Mijin)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외솔관 620

전화번호: 02-2123-2268

전자우편: mwon@yonsei.ac.kr

200 이중언어학 제60호(2015)

접수일자: 2015년 7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9월 14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21일